

북한 1972 진실 찾기: 7.4 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2014년 3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4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8-89-92395-74-8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북한 1972 진실 찾기: 7.4 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I. 머리말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악몽 같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비극을 맞이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질서는 본격적으로 지구 차원에서 군사 대결의 모습으로 건축되기 시작했다. 미소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새 건축물은 단단하게 지어져서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질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축의 변화를 겪게 된다. 지구 차원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긴장관계의 완화라는 데탕트를 시도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관계개선에 접어들고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이루게 된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북한도 1971년 8월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서 다음 해인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기반을 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니 데탕트는 오래 가지 못했다. 공동성명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10월에 열린 제1차 남북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부터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기 시작하여 결국 세 차례의 공동위원장회의와 조절 위원회를 통해 상호 이견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사실상 <7.4 남북공동성명>의 폐기를 선언했다. 한반도 미니 데탕트의 추진은 2년 만에 한 여름 밤의 꿈같이 깨졌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꿈을 뒤늦게나마 21세기에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니 데탕트의 핵심이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폐기되었는가를 제대로 복원해 보려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대 팝 아트의 대가인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가 고향인 영국 동요크셔의 월드게이트(Woldgate) 숲길을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쓴 방법을 빌려 왔다(Hockney 2010). 호크니는 2010년 11월 자동차 앞에 부착한 아홉 대의 비디오 카메라로 각각 각도를 달리하여 고향 숲길을 한 화면으로 구성해서 연속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맑은 날과 눈 내린 날의 두 화면을 대비시키는 시도를 했다. “1972 한반도 2014”의 공동연구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이라는 여섯 대 카메라를 사용하여 1972년 한반도 미니데탕트의 좌절과 2014년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촬영하여 오늘날의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여섯 대의 카메라 중에 북한 카메라의 시야에서 1970년대 초 한반도 미니데탕트의 촬영을 시도한다.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찍을 수 있는 피사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북한 정치



권력이 남겨 놓은 최소한의 자료들을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시야 융합(fusion of visions/Horizontverschmelzung)을 원용한 해석학적 렌즈로 촬영하여 1972년 북한의 진실 찾기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Gadamer 1989, 298-306; 578-579). 그 첫 단계로 1971-1973년 김정일을 주축으로 한 북한 정치권력의 시야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 1964년 이래 3대 혁명역량의 과거시야를 요약하고, 둘째, 1970년대 초반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3대 혁명역량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선택했으며, 셋째, 북한이 3대 혁명역량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폐기했는가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¹

II. 3대혁명역량 시야의 영향

1972년 7월 4일 아침 10시. 서울과 평양은 지난 5월 한국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그리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한 것을 각각 동시에 밝히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천명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다방면의 교류를 실시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적대국가로서 양국 핵심 권력의 만남은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북한이 제의한 통일의 3대 원칙에 한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우선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추진하게 된 배경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1970년대 초 북한 시야가 1960년대 3대혁명역량 시야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기로 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적대 관계는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웠다.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남북한의 공통된 인식은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6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총회에서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자고 선언하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64) 구체적 방법을 1965년 4월14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김일성 1965/04/14).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통일이라는 시야가 1960년대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혁명통일이라는 시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3대 혁명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



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 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조선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남조선 당국에 여러 번 제의하였습니다. …… 남조선에 미제 침략군대와 현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쇼 독재를 뒤집어 엮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

북한의 1970년대 초 통일방안은 첫 단계로, “미제침략군대와 현 괴뢰들”을 몰아낸 다음, 둘째 단계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정부와 군비축소, 무력불사용협정, 다양한 교류협력 조치를 취하고 자주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며, 마지막 단계로 한국에 인민정권이 수립되면 북한의 사회주의 역량과 한국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허담 외무상은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촉진 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통일 8개항’을 제시했다(허담 1971/04/12).

첫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미제침략군이 몰려간 다음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남조선괴뢰정권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측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무효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위하여 정치활동을 벌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며 남조선에서 체포, 투옥된 모든 정치범들과 애국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냥 두고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호상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북 간의 편지거래와 인사왕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들과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남북조선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71년 6월 10일 평양을 방문한 루마니아 당정대표단에게 남북한의 분쟁 발생은 반드시 소련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을 개입시킬 것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시아 분쟁은 지구 규모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국 모두가 전쟁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전쟁적 방도로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 혁명적 방법의 ‘통일 8개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박정희가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를 원하는 누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상황의 전개는 남조선 민주세력과 인민의 투쟁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1-1972).



III.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

김일성 수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남조선혁명의 실현과 조국 통일을 위한 평화공세”를 취하고자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한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단체들과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한 평화공세로 “아시아인끼리 그리고 한국인끼리 싸우도록 하려는 닉슨 독트린을 좌절시키고, 한국군 근대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분단을 지속하고 한국을 군사기지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맞서고, 일본의 한국 침투를 좌절시키고, 한미일의 협력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h).

북한은 평화공세의 목적을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남한의 혁명역량강화에 두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화공세의 또 하나의 목적은 남한 파시스트 억압의 제거다. 남한괴뢰정부는 북한의 남침계획을 핑계로 남조선인민들에게 파시스트 억압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남침 의도가 전혀 없다. 이것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 정부에게 인민과 민주세력들을 억압하려는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남한 혁명역량은 가능한 한 빨리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반동세력의 억압 수단과 반공 신경질이 금지되어야 한다. 북한은 평화공세로 남북의 문호를 개방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북한사상의 영향을 미쳐서 남한의 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2a).

남북한은 1971년 9월 20일 남북적십자 1차 예비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고 회담을 계속했으나 쉽사리 의제선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11월 20일 남북대화의 실무를 맡고 있던 한국의 정홍진과 북한의 김덕현이 별도로 비공개 만남을 합의하고 판문점에서 시작해서 평양과 서울을 거치는 어려운 협의를 통해 72년 3월말 최종적으로 이후락과 김영주의 남북교환방문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락 정보부장은 1972년 5월 2일 역사적 평양방문을 하게 된다. 이후락 부장은 김영주와 두 번의 회의를 했고 5월 4일 0시 15분부터 1시 30분까지 평양 만수대 김일성 관저에서 김일성 수상을 만났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이후락 부장이 먼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박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다음에 김일성 수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후락 부장은 “세가지 원칙을 통일의 기둥으로 삼고 통일은 꼭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의 생각도 동일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락 부장은 4일 오후 1시에서 2시10분까지 다시 김일성 수상을 만났다. 김일성 수상은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외세배격하고 외세에 의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고 또 남조선은 우리가 남침한다고 우려했는데 내가 전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런 우려 없어졌고 남은 문제는 민족단결을 위해서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제 두 가지 오해 풀었습니다. 첫째, 미국, 일본과 결탁하여 전쟁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남침, 적화 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오해 풀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단결문제인데 이것은 더 연구하고 토의하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김일성 1992-2012b;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b;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c).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5월 29일 서울에 도착하여 이후락 부장과 가진 1차 회의에서 지난 5월초 이후락-김일성 회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d).



우리는 남조선에서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여 살아가려 한다고 생각했으며 남에서는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남북이 서로 오해하고 불신한 근본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의 평양회의에서 그 쪽에서는 외세에 의존할 생각이 없고 절대로 대미 대일 관계에서 자주성을 잃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였고 우리는 애당초 남침할 의도가 없고, 우리 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조국통일의 근본적 입장에 대해서 원칙적 합의를 본 조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합의된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철 부수상은 이후락 부장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제들로서 조절위원회의 설치, 기타위원회, 합의내용의 공개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그는 5월 31일 저녁 7시에 40분간에 걸쳐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에 평양회의에서 합의했으며, 오해와 불신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였고, 서로 신임을 두터히 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였으며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 3개 원칙의 합의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나 추진 방법은 현재의 상호불신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며, 합의내용의 공개는 반대하였다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i).

남북한 실무 팀은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남북공동성명 합의서를 준비하여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e). 북한 외무성 부상 이만석은 7월 17일 사회주의 우방국들에게 <7.4 남북공동성명>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동성명의 내용을 요약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f). 그리고 성명의 핵심인 통일 3대 원칙은 김일성 수상이 이후락을 만났을 때 처음 제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벽하게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정부의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석 부상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영향을 남한 혁명역량 강화와 국제 혁명역량의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선 남한의 혁명역량강화를 바람직하게 평가했다. “남조선 인민들은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대사건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기쁨과 열정으로 이를 지원”했으며 “남한의 야당과 주요인사들은 정부가 제정당의 참여 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한 것에 항의”했고 “야당들은 반공법과 비상조치들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한지도자들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남북한의 사회단체, 개인, 체육인들의 교류 방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더불어 이후락 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를 확대하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두고 한 얘긴데, 김종필 총리는 이러한 논의에 관해 국회질의 응답에서 반공법과 비상법들을 바꿀 필요가 없고, 북한을 아무나 여행할 수 없으며, 북한방송 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명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국제혁명역량 강화의 평가에 대해 이만석은 “미국은 수사적으로는 성명을 환영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괴뢰정부를 지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신중했다. 7월 5일 미 국무부는 공동 성명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근대화는 계속된다고 선언했고, 미군 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유엔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분석한 북한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남조선 지도자들이 모두 미래 협상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한을 미국과 일본에서 떼어 내고, 그들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북한의 초점은 미국과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로 남북한 간에 현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폭



넓고 포괄적인 연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만석 부상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우방들이 남한이 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하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남한을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남한의 추가적 고립화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IV. 7.4 남북공동성명의 폐기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8월 16일에 자카리 야나키에브(Zachary Yanakiev) 평양주재 불가리아 외교관은 본국에 올린 남북한관계의 최근 발전에 관한 정보보고에서 대단히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g). 그는 1971년 중반부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해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남북한은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시작해서 1972년에 남한 정부가 통일을 위한 자주적 자세를 받아들이고 북한 정부가 무력통일의 포기에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국제환경과, 미국과 관계개선 과정에 있는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무력통일과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가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공세를 추진하도록 압박했다. 북한은 1971년 4월 13일 인민최고회의에서 “남한의 박정희 괴뢰집단이 제거된 후 진정한 인민 통치가 수립되거나 애국민주인사가 권력을 장악하면 우리는 통일을 대화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말했던 김일성은 8월 6일 연설에서 박정희의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야나키에브는 김일성의 혁명통일에서 평화통일로의 변화를 전술적 움직임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북한의 평화 공세를 “미국과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두려움의 부적절성을 확신 시켜서 주한미군 철군의 조기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전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난공불락 요새와 병력과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 군사원조 삭감의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뒤져 있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후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근대화를 추진할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남북한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을 북한과 접촉하도록 강요했고 최소한 외관상으로도 통일을 위한 자주 원칙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통일 3대 원칙의 선전적 성격과 양국 정부의 상호 제거와 흡수를 겨냥한 국내외적 활동의 모순은 한반도 통일의 신속하고 중요한 진척을 상당히 의문스럽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일성 수상은 9월 1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대답에서 한국이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일성 1972/09/12). 이 비판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에서 빠르게 비판론으로 바뀌고 있는 북한의 시야를 선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우선 자주에 관해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 앉아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 놓고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에 관해서는 “남북공동성명에는 또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쌍방이 정세를 침체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한두 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으며 군사연습을 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대한 남조선위정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과 도발행위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결국 대화 있는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대단결에 관해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편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 자유를 말살하며 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수상은 대답에서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지키며 불신임을 제거하고 호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게 나온다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투쟁하려고 합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북한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루마니아를 방문한 정준택 부총리는 9월 22일 니콜라에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일성 수상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공동 성명의 추진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평화공세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i).

첫째, 남한문제는 지하(불법)투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세력을 신속하게 키우고, 남한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남한에는 평화통일을 원하는 많은 인민들과 진보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가 남한을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남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혁명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남침을 원한다는 남한의 기만적 선전의 허구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셋째, 한반도 영구분단과 남북한 투쟁의 지속에 관해 소위 닉슨 독트린을 제시한 미 제국주의의 책략을 밝히는 것이다.

이어 정준택은 평화공세의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단계로서 국내외적으로 고립된 박정희가 현존하는 남북의 두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인정하는 연방제의 창설을 받아들일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제거되고 야당인 신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절대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남한의 민주화가 달성되고 모든 정치 사회 조직들의 활동이 합법화 되면 남한의 통일혁명당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혁명세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때에 비로소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해 북한이 원하는 민주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세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슈는 주한미군의 철수이므로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준택은 미국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한국이 모험스러운 길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따라서 평화공세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은 주한미군철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00일이 지난 10월 12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지금 국제정세는 우리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유리한 정세발전에 의거하여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풀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세발전과 그것이 우리 앞에 제기하고 있는 요구에 비추어 볼 때 <7.4 남북공동성명>은 지극히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이미 3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공동사업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으며 이로 인하여 그것은 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되게 원만히 진척되지 못했습니다.”라고 비판하면서 김일성 수상이 지적한 것처럼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위반되는 현상들을 지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서 부정적인 면이 더 많으며 따라서,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고 남북이 단결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고자 하면 우선 외세의존을 끝내며 반공을 그만두고 비상사태를 해제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사이에 정치협상을 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응당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남북한은 북한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격론을 벌였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j).

박성철 부수상은 11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에게 통일 3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반공>정책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들고 <반공>선전과 <반공>교육을 하며 또 그것을 인민에게 강요한다면 우리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의 재침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광범히 발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귀족이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광범히 발양시킴으로써 그들이 조국통일 위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k).

남북은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절위원회 1차 회담을 3차 공동위원장회의와 함께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개최하였으며 박성철 부수상은 모두 발언에서 조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남북의 상호신임과 실천적 표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 협작의 구체화, 남북 최고위급 회담 마련을 강조했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2).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1일 저녁 북한 대표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욕심 같아서는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 우선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어 그렇게 하여 진전시켜야 합니다. …… 이번 조절위원회에서 군비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기치 않아야 합니다.”라고 남북의 의견차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2b).²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은 1973년 3월 중순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 가는 속에서도 회담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한의 상이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먼저 북한은 평화공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작용했다. 회의 직전인 3월 8일에 루마니아를 방문한 김재석은 북한의 최근 평화공세를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b). 첫째, 남한과 전세계가 누가 통일을 막고 있으며 누가 평화를 원하며 누가 전쟁 수행에 관심 있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고,



둘째, 남한 정부를 국내외적으로 고립화시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북한이 남침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선언했기 때문에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야 할 아무런 핑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기록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한 혁명가들이 지하에서 비합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던 때 보다 현재 상황은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남북대화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d). 첫째, 남한은 미중 관계개선과 미소 데탕트 이후에 미국에 의해 버려졌던 장제스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남한이 모든 면에서 북한에 비해 열세이므로 북한의 대화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겪게 될 정치적 혼란을 남한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미국과 일본이 남한 정부에게 북한의 통일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남한은 약하고 북한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시간을 벌기 원하고, 북한의 제안들에 대한 남한 진보세력들의 지지를 완전히 없애기를 원한다. 남한정부는 국내지위를 공고히 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북쪽과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통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남한의 계획은 실패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3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c).

귀측에서는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나서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자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하고 민주주의를 억제하며 외국세력을 계속 업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실은 귀측이 우리와 대화는 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유지하며 대화의 막 뒤에서 대결과 승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 사이의 가장 선결적인 문제인 긴장상태 및 군사적인 대치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 두고, 남북의 군대를 10만 이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 일체의 반입을 중지하고,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5개 항목을 제안하고, 쌍방의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포함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 외교, 경제, 문화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은 북한의 적극론과 한국의 신중론이 맞선 가운데 치열한 설전 속에서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남북간에 합의한 공동발표사항은 없었다. 평양의 소련 외교관들은 북한이 2차 회담에서 전과 달리 한국과의 이견 조절 보다는 독자적으로 5개항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 이유로 우선 남한의 눈에 띄는 국제적 고립 증대와 국내적 갈등의 심화에 비해 북한의 국제적 명분 확대에 대한 확신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처음에는 대단히 낙관했으나 북한이 점차 베이징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서 북한의 허담 외상이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과 3월말 나눈 대화에서 중국의 주은라이 수상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미군의 아시아로부터 철수문제에 관해 중국은 아직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e).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은 6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담 모두발언에서 첫째,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5개 항목을 더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둘째, 남북대화의 협상을 보다 폭넓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셋째, 남북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외교의 5개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설치하자는 제의를 했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f).

회담은 예상대로 난항이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2차 회담의 주장을 반복했고 한국도 첫째, 간단한 합의마저 지킬 수 없는 남북관계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시기상조이며, 둘째, 별도 정치협상회의의 문제는 분과위원회들이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경제와 사회문화의 2개 분과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고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다른 분과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은 아무런 합의도 할 수 없었고 점차 더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다(국토통일원 1973).

박성철 부수상은 평양으로 돌아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차 회담에서 나타난 견해차이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미 남북회담 첫 날부터 뚜렷이 나타난 단결노선과 대결노선, 합작노선과 경쟁노선, 통일노선과 경쟁노선간의 노선상 차이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통일을 하루 빨리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끝없이 계속시키자는 것인가 하는 입장상 차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국토통일원 1973).

북한 노동당은 루마니아 외교관에게 남북조절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알려 주면서 한국이 북한의 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들을 한국의 국내의 정세에서 찾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 내에 가장 힘이 있고 통일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군부, 경제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에 제한해서 북쪽과 접촉하려는 중도파, 통일의 빠른 달성을 원하는 진보애국세력을 포함한 반대파의 생각 등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 불안정한 남한은 통일 과정을 늦추고 <7.4 남북공동성명>의 수정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i).

김일성 수상은 19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 총비서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문호개방을 포함하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한국의 <6.23 선언>에 맞서, 미국과 한국이 양면전술을 쓰고 있으므로 북한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통일을 위한 대민족회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의 실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새로 발표한다고 주장했다(김일성 1973/06/23). 남북한이 각각 <6.23선언>과 <5대방침>을 밝힘으로써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시도했던 한반도 미니 데탕트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 가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본격적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973년 8월 28일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기존 남북대화의 종단을 선언했다. 성명은 야당인 신민당 당수 김대중을 일본에서 서울로 납치한 중앙 정보부를 격렬히 비난하고 “이후락은 우리와 마주 앉아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합의하고 남북공동성명에서 명하고서도 돌아 앉아서 쌍방이 합의한 원칙과는 배치되게 행동하였으며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과 통일대신에 대결과 경쟁과 분열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왔다.”라고 지적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후락과 같은 자들을 제거하고 민족적 양심이 있고 쌍방 사이의 신의를 지킬 줄 알며 민족분열의 고정화를 반대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하며 동시에 남한 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두 개 조선’ 노선을 취소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 두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정당, 단체들의 자유를 보장하며 김대중을 비롯하여 체포, 투옥한 애국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g).

전망과는 달리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가 주한미군 철수에 의한 국제 혁명역량의 강화나 박정희 정부의 국내외적 고립이라는 남한 혁명역량 강화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북한 지도부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세갈래 길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첫 번째 길은 지난 2년 동안 걸어 왔던 평화적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박정희대신 민주정부가 서울에서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2대 과제를 현실적으로 완수하기가 어렵다는 난관에 봉착했다. 두 번째 길은 군사적 길로서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보유하고 휴전중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속에서 북한이 군사적 수단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소련, 중국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혁명적 길로서 남한 혁명역량의 강화로 수립된 민주정부가 남북통일을 위해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고 북한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반도의 해방과 통일이 월남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선택에 직면한 북한은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신속한 강화, 남한 민주혁명운동의 지원, 세계 혁명역량과의 유대 강화라는 3대 혁명역량 강화의 길로 되돌아 간다(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h).

이러한 시야 조정을 북한 역사학계의 중진인 허종호는 1970년대 중반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허종호 1975, 263-271). 우선 김일성 수상이 말하는 조국통일의 두 전도에서 시야의 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혁명에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의 전도요, 큰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조건 하에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입니다.” 이러한 시야에서 평화적 통일이란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전 민족적 단합에 기초하여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말하며,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의 세가지 가능성으로서 “첫 번째 가능성은 오직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추세에 빠지고 통일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남조선에 반제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거나 남조선이 중립화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남조선에서 혁명역량이 강력하게 꾸러지고 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를 들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비평화적 전도의 세 가능성이었다.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게 될 때 우리가 맞받아 나아가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비평화적 전도의 다른 하나는 이리 저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미제를 내쫓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 미제가 큰 전쟁에 의하여 세계적 범위에서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거나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반제반미 투쟁의 양양에 의하여 이르는 곳마다 얻어나고 쫓겨날 처지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조선에서의 미제 침략세력이 이 약화된 기회를 리용하여 비교적 쉽게 미제를 내쫓고 해방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 …… 다른 하나는 남조선에서 혁명 정세가 성숙되고 남조선인민들이 결정적인 투쟁에 떨쳐나서 북반부형제들의 지원을 요구할 때 우리의 지원에 의하여 남북혁명역량의 전략적 배합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V. 평화공세에서 다시 혁명통일의 길로

북한은 한국전쟁이래 1960년대 초반까지 유지했던 전쟁통일방안대신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 국내외



상황변화와 함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통한 통일방안을 새롭게 추진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함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7.4 남북공동성명>의 평화공세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망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철수와 박정희정부의 국내외적 고립이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은 1971년 6월부터 2년 동안 추진했던 평화공세의 막을 1973년 8월에 정식으로 내리고 다시 혁명통일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시야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21세기 지평을 여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주(註)

- ¹ 해당시기의 북한사료로는 김일성 1979-1998; 김일성 1992-2012; 김일성 1996a; 김일성 1996b; 신동아 1989; 국토통일원 1971-1973; 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1-1972;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09a;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2a;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1를 참고하라. 이 시기 북한사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남북대화의 발언 내용과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우방국들에게 제공하는 설명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 ² 북한은 박대통령과 가진 대화내용을 동유럽 사회주의 외교관들에게 소개하면서 남한의 전형적인 양면전술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토통일원. 1971-1973. 《남북대화사료집》 제7권. 남북조절위원회(1971.11-1973.6)
- 김일성. 1965.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 강연〉. 4월 14일.
- _____. 1972.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 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3.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9월 12일.
- _____. 1973.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코슬로벤스꼬 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변인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6월 23일.
- _____. 1979-1998. 《김일성저작집》 5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2012a. 《김일성전집》 10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2012b.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1972/5/3) 《김일성전집》 10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a. 《련방제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b.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신동아 1989.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64.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제4기 8차 총회〉 8월.
- 허담. 1971.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 4월 12일.
- 허종호. 1975. “혁명적 대사변과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263-27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Gadamer, Hans-Georg. 1989. *Truth and Method*, Second, Revised Edition(Translation revised by Joel Weinsheimer and Donald G. Marshall.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98-306; 578-579.
- Hockney, David. 2010. “Nov. 7th, Nov. 26th 2010, Woldgate Woods, 11.30 am and 9.30 am”(<http://hockney.guggenheim-bilbao.es/en/works/nov-7th-nov-26th-2010-woldgate-woods-11-30-am-and-9-30-am/>)(Guggenheim Bilbao: David Hockney: A Bigger Picture: May15-September 30, 2012)
-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2011. *After Détente: The Korean Peninsula, 1973-1976 A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 _____. 2009a.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b. “Document no.19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1972/5/4).”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c. “Document no.20 On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Unification: Conversation with South Korean Delegates to the High-Level Political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1972/5/3).”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d. "Document no.21 Conversation between Park Chung Hee and Pak Seongcheol(1972/5/31)"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e. "Document no.24 GDR Embassy to DPRK Pyongyang, 4 July 1972 on Information provided by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Kim Ryeongtaek, on 3 July 1972 for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Poland, Bulgaria, Czechoslovakia, Mongolia, Romania, Hungary, and the GD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f. "Document no.25 GDR Embassy to DPRK, Pyongyang, 20 July 1972 on Information from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Lee Manseok (?), on 17 July 197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g. "Document no.26 on Information regarding: New developments concerning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South Korea, August 16 197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h. "Document no.27 GDR Embassy to DPRK Pyongyang, 15 September 197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i. "Document no. 28 Minutes of Conversation between Nicolae Ceausescu and the economic delegatio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1972/9/2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j. "Document no. 31 Information concerning: 1. The first conference of the co-chairs of the Committee on regulation of the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was held on October 12th in the Panmunjom area, and 2. The announcement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on the 17th this month. October 19, 197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09k. "Document no. 37 GDR Embassy to DPRK Political Department, Pyongyang, 9 November 1972, On an Information by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Lee Manseok on 8 November 1972 for the Ambassadors of Czechoslovakia and Poland and the Acting Ambassadors of the GDR in the Foreign Ministry Comrade Lee Manseok informed the comrades in attendance about the results of the 2nd Sessi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North-South in Pyongyang between 2 and 4 November 1972."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Document Reader #3 New Evidence on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 _____. 2012a.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b. "Document no.5 Minutes of Conversation Taken on the Occasion of the



- Audience Granted by Comrade Nicolae Ceaușescu to the Deleg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1973/3/8)."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c. "Document no.8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SECRET, No. 061084, (1973/3/17)"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d. "Document no.12 telegram from Beirut, No.015.088, Urgent, SECRET, (1973/4/2)"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e. "Document no.14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119, Urgent, SECRET, (1973/4/11)"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f. "Document no.18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238, Urgent, SECRET, (1973/6/16)"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g. "Document no.21 Telegram from Pyongyang, No.061.360, Urgent, SECRET, (1973/8/29)."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h. "Document no.25. Telegram from Moscow to Bucharest, Secret No.050.512(1975/5/19)."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_____. 2012i. "An Jang-il, division head within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riefed the Romanian chargé d'affaires on the third session of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on 12-14 June in Seoul(1973/6/27)." *DPRK Perspectives On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July 4th Joint Communiqué*.
- Woodrow Wilson Digital Archive. 1971. "Minutes of Conversation on the Occasion of the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on behalf of the Romanian Socialist Republic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1971/6/10)."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2790>.
- _____. 1971-1972. *Inter-Korean Dialogue 1971-197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24/inter-korean-dialogue-1971-1972>.
- _____. 1972a. "Note on Information from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Ri Man-seok, on 17 July 1972 between 16:40 and 18:00 hours in the Foreign Ministry" July 20, 1972,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A AA, MfAA, C 951/76. Obtained for NKIDP by Bernd Schaefer and translated for NKIDP by Karen Riechert.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237>
- _____. 1972b. "On an Information by DPRK Deputy Foreign Minister Comrade Ri Jong-mok [Ri Jong Mok] on 9 December 1972 for the Ambassadors and Acting Ambassadors of Poland, Bulgaria, Hungary, Czechoslovakia, Romania, and the GDR." *Inter-Korean Relations 1971-1972*.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567>.
- _____. 1973-1975. *Demise of Detente in Korea 1973-197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collection/126/demise-of-detente-in-korea-1973-1975>.



필자약력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 핵 문제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복합과 공진》,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 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으로부터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와 한국외교”(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연구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 본 자료집은 EAI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유재승 외교안보연구팀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ryu01@eai.or.kr